

## 넓고 거센 기본소득 파도를 만들자

윤김진서

기본소득당  
서울시당 사무처장

우리 기본소득 선거할래?

대통령 선거가 끝난 날, 나는 기본소득당의 동료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며 개표 방송을 보고 있었다. 오준호 후보가 몇 표를 얻었는지, 과연 이 고리타분한 언론이 오준호 득표율을 보여주는지, 오준호 후보 사진이 나올지 궁금해하며 우리는 TV 앞에 앉았다. 한참이 지난 새벽에야 결과가 정해지고 우리는 모두 한숨을 푹푹 쉬며 헤어졌다.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비명이 가득했고 페이스북 타임라인은 조금 더 길고 구체적인 글로 절망을 공유하는 중이었다. 나는 다음 날 잠에서 깬 순간까지도 내가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의 충격은 단순히 누가 당선됐다는 사실에서만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 대선 기간 내내 나의 많은 후보들의 행보는 실망스러웠고 어떤 부분은 뻥할 만큼 구렸다. 윤석열의 ‘여성가족부 폐지’ 게시글을 봤을 때, 이건 진짜 계정 해킹이리라 생각했고 이재명이 디씨(디씨갤러리)에 갤주(갤러리 주인)라며 글을 썼을 때에는 이번 대선 없던 일로 하면 안되나 싶었다. 심지어 기본소득의 선봉장처럼 굴던 이재명의 본선거 기간 행보를 보면서는 오준호 빼고 다 사퇴하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다. 혐오를 대변하고 기본을 포기하는 대선이었다. 기본소득을 비롯해 평등을 목 터져라 말하는 오준호 후보를 비롯한 소수정당 후보들은 잘 드러나기 어려웠고 기본소득 연대를 구축하는 일은 어려웠다. 누가 당선되었다고 하더라도 나는 아마 비슷하게 절망했을 것이다.

윤석열 뒤에 후보가 아닌 당선인 세 글자를 붙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전에 두 번이나 거절했던 기본소득당의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후보 출마를 결심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나는 거기에 없어 서울시장 후보의 선본장까지 되어 있었다.

### 기본소득을 지지하는-페미니스트

물론 지방선거에 출마를 결심한 것이 단순히 분노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나에게 기본소득은 나와 나의 친구들에게 꼭 필요한 대안이었기 때문에 정치의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았다. 나는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을 겪었고, 20대 중반까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했으며, 혼자 상경해 비좁은 원룸 생활을 몇 년째 하고 있는 사람이다. 또래의 여성 친구들과 모이면 일상에서 성폭력과 차별이 얼마나 흔한지 말하고, 취업한 친구들을 만나면 일하기 너무 힘들고 싫다는 토로를 듣고,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과는 서울에서 살만한 집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푸념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은 너무나도 많은 차별이 겹겹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었다. 나와 친구들의 삶에서 복잡하게 교차하는 차별을 발견했을 때, 나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페미니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에게서 차별과 선별을, 분배와 소득을 처음부터 다시 써내려가는 정치가 필요했다.

기본소득이 말하는 새로운 세상, 평등한 미래라는 것은 페미니즘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장면이었다. 따라서 페미니즘과 기본소득이 만났을 때, 고루한 차별을 향한 새로운 질문은 큰 파괴력을 가진다. 여성을 가족 관계 속에서 아내나 딸, 엄마로만 바라보는 사회에 우리는 여성도 개인이라는 페미니즘적인 접근과 가족이 아닌 개인의 존엄을 말하는 기본소득의 접근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재난 상황에 유독 비정규, 불안 노동으로 여성이 많이 배치되거나 쉽게 해고되는 문제에도 노동시장의 여성 차별을 고발함과 동시에 노동중심성을 비판하고 새로운 재분배 패러다임을 제시해야만 한다. 폭력에 노출된 여성이 기꺼이 그 공간을 벗어나 자립할 수 있으려면 기본소득의 지원과 페미니즘의 새로운 상상력이 모두 필요하다.

선거 기간 동안 언론에도 잘 나지 않는 소수 정당의 후보이자 선본장으로서 어떻게든 우리의 이야기를 전하려고 공보물로, 글로, 유세로 갖은 애를 썼다. 나는 우리에게서 페미니즘 관점의 기본소득과 기본소득 관점의 페미니즘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건네는 선거를 만들고 싶었다. 특히 박원순과 오세훈이 차례로 시장을 역임한 서울에서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말하는 후보는 꼭 필요했다. 감사하게도 작은 유세차에서 신지혜 후보나 내가 마이크를 잡고 있으면 정말 많은 젊은 여성들이 인사를 하거나 환호를 하고 지나갔다. 그들은 젊은 여성 후보를 신기해하고, 좋아했으며, 기본소득이라는 대안에 기꺼이 귀를 기울였다. 왜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을 주요한 가치로 말하게 되었는지 이해하려고 했으며, 기본소득당이 말하는 평등에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일거수일투족이 언론에 실리는 거대 양당 후

보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도 아니었지만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대변하고 싶었다. 기본소득당이 페미니즘 정책을 잘 짰더라, 젊은 여성 후보들이 많더라 하는 반응은 나에게 가장 큰 동력이었다.

### 더 너른 연대를 향해

페미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반감 섞인 눈빛이나 작게 읊조리는 욕설은 충분히 예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를 고민에 빠지게 한 어떤 남성이 있었다. 본선거 유세 막바지에 사람 많은 홍대에서 유세를 하던 중이었다. 나는 바쁘게 일만 하며 사는 게 힘들지 않냐면서 여유있는 일상을 기본소득으로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일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싫을 때도 있잖아요?”라는 나의 말에 지나가던 젊은 남성이 “안 힘들어 \*\*년아”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는 정말 약삭빠르게도 유세차를 거의 다 지나가던 중에 욕설을 날리고 내가 쳐다보자 후다닥 유세차 뒤로 사라졌다. 젊은 여성 후보에게 쉽게 욕설을 뱉는 남성 문화는 뒤로 하고, 페미니즘도 아닌 일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 그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반감을 내비치는 것이 처음이라 나는 좀 신기하면서도 걱정스러웠다. 일하는 게 힘들지 않냐는 얘기가 심기를 건드렸나? 노동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인가? 일 안해도 된다고 하면 괴로워하며 눈물을 흘리면 어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상상력을 제각기 다른 사람들의 삶과 어떻게 엮어서 전달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들었다. 그가 언젠가 그의 행동을 부끄러워하고 후회하길 바라면서도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이 언젠가 그의 삶까지 바꿀 수 있도록 선거 이후에도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 머리 속을 채웠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본소득을 계기로 한 너른 연대의 작은 시작이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기본소득당의 후보로서 페미니즘과 청소년 인권, 동물권과 기후정의를 말했고 차별의 문제를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기본소득이 바뀌낼 세상에 나는 아주 많은 가치가 공존하리라고 믿는다. 그 가치들과 기본소득을 잘 엮어내고 너른 연대를 확장하는 것이야말로 선거 이후 우리 앞에 놓인 과제가 아닐까? 더 소란스럽고 부산스럽게 기본소득 정치를 함께 해나갈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더욱 단단하고 끈끈해지기를 기대해본다.